

주40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에 즈음하여...



글·이 기 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경기 수원 권선구)

지난 2004년 7월 1일부터 총 156개 병원에 주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되었고, 그 2단계로 2005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에 병원의 경우를 보면 93개 의무적용 대상 병원 이외에 63개 병원은 의무적용 대상은 아니었지만 노사협의를 통하여 주4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였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민간중소병원 135개, 사립대학병원 29개 등 총 164개 병원에 추가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1년간 시행된 주40시간 근로제에 대해서 진료공백의 발생이나 노사간 마찰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 하였으나, 정부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보다는 병원의 자율에 맡긴 경향이 너무 짙다. 실제로 지난해 주40시간 근로제 시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례로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를 보면 19개소는 정상진료를 하였으나, 13개소는 진료과목을 축소하였고, 2개소는 전면휴무를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의 보고와는 달리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 공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공병원의 실정이 이러하데 민간병원이 어떠했을지는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의무적용 대상이든 의무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노사협의를 통해 주40시간 근로제를 시행한 병원이든 민간병원에서 경영난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흘러들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병원의 입장에서 보면 가뜩이나 낮은 수가로 인해 병원의 경영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주40시간 근로제의 확대 시행되면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추가 고용 또는 수당 인상 등으로 비용의 증가를 피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체제로는 도산하는 병원이 양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보건복지부에 수가의 인상 등 다양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병원의 숫자가 총 164개라고 한다. 작년부터 시행중인 156개 병원을 포함하면 총 320개 병원에서 주40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는 것이고, 올해 실시하는 병원의 대부분은 민간 중소병원이다.

병원의 입장에서 보면 가뜩이나 낮은 수가로 인해 병원의 경영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주40시간 근로제의 확대 시행되면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추가 고용 또는 수당 인상 등으로 비용의 증가를 피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체제로는 도산하는 병원이 양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보건복지부에 수가의 인상 등 다양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병원들의 요청을 들어주어 수가를 인상하게 되면, 국고지원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건보재정의 또다른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결국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수가 인상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병원측에서는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평일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하고 남은 1시간을 모아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주40시간 근로제를 제안했으나, 대부분의 노조에서는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병원 노동자들도 전면적인 주5일제 근무를 주장한다고 한다. 병원측이 판단하는 주40시간 근로제와 노조측이 판단하는 주40시간 근로제는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국민을 중심에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병원을 운영하는 측이나 노조측도 국민의 일부이긴 하다. 하지만, 실제 병원을 이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40시간 근로제의 확대 시행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양적·질적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간 대형병원의 경우에도 주40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면서 경영난을 호소하는데,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우에서 보듯이 공공병원에서도 진료과목을 축소하거나 전면휴무를 실시하는 상황이라면 이번에 주40시간 근로제가 확대 실시되는 300인 이상 중소 민간병원은 지방공사 의료원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결국은 중소민간병원도 진료과목을 축소하거나 전면휴무를 실시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병원부문의 주40시간 근로제 실시에 따른 의료서비스 유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주40시간 근로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의 추계, 사업장의 요구, 노동자의 요구, 국민의 요구를 폭넓게 확인하여 병원과 노동자,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따로 없이 주40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이 필요한 때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의료서비스 유지 대책에 대해 논의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때이다. **KHA**